



유아음악교육에서의 음원 사용에 관한 연구

이 소현¹ · 모 아라^{2*}

¹포스코 직장어린이집

²연성대학교 사회복지과

A Study on the Use of Sound Source in Music Education for Children

So-Hyun Lee¹ · A-Ra Mo^{2*}

¹POSCO Child Care Center, Seoul 06194, Korea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eonsung University, Anyang-si 14011, Korea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음악교육에서 음원 사용의 실태, 디지털 음원 사용에 관한 사용 방법, 장점 및 이유, 단점 등을 파악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유아음악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는 유아교사 8명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음원 사용 실태]는 <디지털 음원이 자주 사용됨>, <상황에 따라 직접 연주도 필요함>으로, [사용방법]은 <자료 다운로드 후 카세트로 제공>, <노트북, 스마트폰으로 제공>으로, [사용 장점 및 사용 이유]는 <사용하기 편리함>, <연주하기 어려운 곡의 경우 요긴함>으로 [음원 사용 단점]은 <다양하지 못함>, <사용방법이 불편할 때도 있음>으로 주제가 분류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use of sound sources in music education for children, discuss how to use the digital sound sources, and explain the advantages and the disadvantages. The study participants collected data through focal group interviews with 8 preschool teachers interested in music education for childre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ctual use of sound sources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Digital sound source is frequently used," "Need to play directly according to circumstances." The method of digital sound source use was divided into "Download as paid and provided as a cassette," "Playing sound sources directly from laptops and smartphones." Benefits and reasons for digital sound source use was divided into "Easy to use," and "Necessary when it is difficult to play the actual piece." Demerits of digital sound source use was divided into "Lacking variety" "Inconvenience of use." This study is believed to be meaningful in providing the basis for the provision of sound sources in music education for children and the basic sources of research on the use of sound sources.

색인어 : 유아음악교육, 음원, 디지털 음원

Key word : Music education for children, Sound source, Digital sound source use

<http://dx.doi.org/10.9728/dcs.2017.18.3.509>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10 May 2017; Revised 26 May 2017

Accepted 20 June 2017

*Corresponding Author; A-Ra Mo

Tel: +82-10-2248-0196

E-mail: moara0515@hanmail.net

1. 서론

Platon은 음악은 질서와 본질이고 모든 것에 기쁨과 생명을 준다고 했고[2], 「국가론」에서는 음악교육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교육수단이라고 하였다[13]. 동양의 유교사상에서는 예악(禮樂)을 중요시하여 최고의 이상적 가치인 ‘예(禮)’를 받아들이기 위해 ‘악(樂)’을 활용하도록 하였다[8]. 이렇듯 음악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야이다[17].

Gardner[4]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여덟 개 영역의 지능으로 분석하였는데, 음악적 지능(Musical intelligence)도 그 중 하나이다. 그는 음악지능이 가장 먼저 발전하는 지능이라고 설명하면서 영유아기 음악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음악 지능은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는 독립적인 정신 활동으로 볼 수 있다[16]. 영유아기는 음악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6], 이 시기에 형성된 음악적 감수성은 이후의 음악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7]. Gordon[5]은 유아기를 포함하는 만 9세 이전에 음악적 적성이 환경의 영향에 따라 변화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유아음악교육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경우 ‘예술 경험 영역’에서 음악교육 내용을 다루었다. 3, 4,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는 활동 유형(영역) 중 ‘음률’ 혹은 ‘음악’으로 분류하여 음악교육 내용을 소개하였다[15]. 영유아교육에서 다루는 음악 활동은 듣고 움직이기, 노래 부르기, 연주하기, 창작하기 등이 있다[11]. 이 중 노래 부르는 가장 쉽고 기본적인 음악활동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1].

영유아에게서 음악적 행동이 나타나는 시기에 대해 많은 음악교육학자들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음악이 모든 영유아의 것이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음악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견에는 대체적으로 일관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9], [16]. 특히, 음악의 요소도 다른 예술 활동처럼 노래 부르기, 동작표현, 악기연주, 창작하기와 같은 음악적 행위나 기술을 통하여 표현되기 때문에 영유아 음악발달에 있어 음악의 기술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14].

최근 교육현장에 컴퓨터를 활용한 매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6년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이 88.3%에 이를 정도로 인터넷의 보급이 급속히 증가하여 다양한 자료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여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컴퓨터의 활용을 통해 기능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돕고 풍부한 정보나 자료를 쉽게 얻게 되어 이를 활용한 매체(음원) 제작이 용이하게 되었다[12]. 다만, 오디오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21]를 벗어나기 위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3].

여기서 음원(音源, Sound source)이란, 음(sound)의 근원(source)을 말한다. 실제 악기를 직접 연주하면 나타나는 소리가 바로 음원인데, 음악 세계에서 모든 악기를 음악을 들을 때

마다 직접 연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악기의 소리를 특정한 매체(Digital Audio Tape, Compact Disc, Digital Video Disc 등)에 기록하였다가 필요할 때 소리로 환원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의 모체가 바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음원이 되는 것이다[20].

최근 음악교육에서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의 형태는 특정한 매체를 직접 이용하기보다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한다. 특히 동영상의 경우 노래 부르기 뿐 아니라 율동과 같은 동작표현에 많은 효과가 있으며, 악기연주, 창작하기와 같은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음원 사용 경험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향후 유아음악교육을 위한 음원 제공의 방법 및 유아교육현장에서 음원 사용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유아음악교육에서의 음원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음악교육에서의 음원 사용에 대한 교사의 경험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focus group)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focus group) 인터뷰는 준비단계, 리쿠루팅, 실시 작업, 분석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2-1. 준비단계

준비단계에서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결정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부합한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 재직 중에 있는 교사로서 현재 새노래 지도, 음악감상, 악기연주 등 대집단 활동을 비롯해서 다양한 유아음악교육 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유아반 담임교사로 한정하였다.

이에 3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만 3세에서 만 5세반의 담임 교사들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리쿠루팅

선정된 연구참여자의 사전인터뷰를 통해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소 유아음악교육에 소신을 가지고 고민하며 유아음악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 8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배경

Table. 1. The general background of the study participants

	Year	Career	Age of class	Mainly used musical instruments	Ability to use
Teacher A	26	2	4	Ukulele	High
Teacher B	28	3	3	Ukulele	Low
Teacher C	28	4	5	Piano	High
Teacher D	28	4	4	Piano	Middle
Teacher E	32	5	5	Ukulele	Middle
Teacher F	33	4	4	Ukulele Piano	High
Teacher G	38	12	5	Piano	High
Teacher H	41	9	3	Piano	Middle

2-3. 실시작업

그룹 인터뷰의 대화에 지장에 없는 범위에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질문하였고, 그 외에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4명을 1그룹으로 하여 2회씩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은 비공개이며 인터뷰를 통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과 함께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언급하였다. 그룹 면담은 2017년 4월 3일과 4월 7일에 이루어졌다.

2-4. 분석 작업

수집된 자료는 Colazzi(1978)가 제시한 5단계의 자료 분석 과정에 따라 분석하였다. Colazzi는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한 자료 분석을 강조하며, 이러한 분석 속에는 연구자의 지각 또한 포함시켜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유아음악교육에서의 음원 사용에 관한 주제의 그룹 인터뷰 내용은 전부 녹음되었고, 연구자들은 녹음된 자료 전체를 필사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표 2와 같다.

표 2. 자료 분석 방법

Table. 2. Data analysis method

Stage	Analytical method
1 Stage	Transcription transcription
2 Stage	Repeat reading
3 Stage	Extract meaningful statements
4 Stage	Gather similar content
5 Stage	Making components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된 자료는 연구 참여자 2명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과 피드백을 받았으며, 그 후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유아교육과 교수 1명에게 타당성을 확인받았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교사 8명의 유아음악교육에서의 음원 사용에 대한 경험을 현상학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96개의 의미있는 진술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의미있는 진술들을 바탕으로 주제와 더 포괄적인 주제군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유아음악교육에서 음원 사용에 대한 경험은 4개의 주제군과 8개의 주제였으며, 이는 표 3과 같다.

표 3. 유아음악교육에서의 음원 사용 경험

Table. 3. Experience using sound source in Music Education for children

Components	Sub-components
Actual use of sound sources	Digital sound source is frequently used
	Need to play directly according to circumstances
Method of digital sound source use	Download as paid and provided as a cassette
	Playing sound sources directly from laptops and smartphones
Benefits and reasons for digital sound source use	Easy to use
	Necessary when it is difficult to play the actual piece
Demerits of digital sound source use	Lacking variety
	Inconvenience of use

자료분석을 통해 유아교사가 경험하는 유아음악교육에서의 음원 사용에 관해서 음원 사용 실태, 디지털 음원 사용 방법, 디지털 음원 사용의 이유와 장점, 디지털 음원 사용의 단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3-1. 음원 사용 실태

유아음악교육에서의 음원 사용에 대한 경험은 [음원 사용 실태]에 관한 주제군에서 <디지털 음원이 자주 사용됨>, <상황에 따라 직접 연주도 필요함>으로 주제를 분류할 수 있었다.

1) 디지털 음원이 자주 사용됨

교사들은 유아들과의 음악 활동 중에서 디지털 음원의 사용은 보편화되고 있었으며, 이는 교사 본인의 악기 연주 실력과 관련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1가지 이상의 악기에서 유아 음악교육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연주 실력을 갖춘 교사에게서도 디지털 음원의 사용은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디지털 음원 사용이 반드시 악기 연주가 불가능해서라고 판단할 수는 없었다.

요즘에는 (디지털 음원을) 많이 쓰죠. 저두 대부분 그 결과 써요. (2017. 4. 3. 교사 A)

예전에는 그냥 피아노로 쳐 줬는데... 언젠가부터는. 요즘에는 음원을 더 많이 쓰는 거 같아요. (2017. 4. 3. 교사 G)

저두 피아노도 좀 치고, 우쿨렐레도 배웠어요. 그래서 반주도 할 수 있고한데, 새노래 지도할때는 음원을 사용

하게 되는 거 같아요.(2017. 4. 7. 교사 F)

악기 다루는 거량은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 아이들이 컴퓨터로 들어주는 거를 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꾸 사용하게 돼요.(2017. 4. 7. 교사 A)

2) 상황에 따라 직접 연주도 필요함

유아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음원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직접 연주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 및 유아음악교육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유아교사들은 디지털 음원 사용 능력 뿐 아니라 악기 사용 능력도 함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음원만 사용할 수는 없죠. 아무리 인터넷으로 들어줘도 그때 그때 연주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2017. 4. 7. 교사 D)

도저히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어지간한 건 다 있긴해도. 우리가 딱 맞는 게 없을때가 많거든요. 아이들한테 좀 아닌 거 같을 때도 있고. 너무 반주가 화려할때가 저는 특히 그래요. 새노래 지도할 때 정확한 음을 알려주려면 일단 반주도 없이 음만 쳐주잖아요. 저는 그래서 같이 사용해요. 제가 직접 연주해주시고 하고, 인터넷으로 찾아서 들려주시고 하고 그래요.(2017. 4. 3. 교사 F)

저는 악기를 잘 못해서...어쩔 수 없이 음원으로만 하는데, 이건 아닌데 싶을때가 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죠. 이것도 없었으면. 난 옛날에는 정말 교사 못했겠다 싶어요. 간단한 악기라도 좀 배워야겠다 싶어서 우쿨렐레 배우며 노력하고 있긴한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꾸 해봐야 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깐. 자꾸 음원을 쓰게 돼요.(2017. 4. 3. 교사 B)

음원 사용하는 것도 능력인 거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부끄럽기도 한 데. 컴퓨터도 좀 불편하고, 음원 찾아서 트는 것도 어렵고 그래요.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젊은 교사들은 잘도 쓰던데. 저희때 사용하던 게 아니잖아요. 다들 쓰는데 저만. 그렇다고 이런 건 어느 교육·연수에서도 따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2017. 4. 7. 교사 H)

3-2. 디지털 음원 사용 방법

[디지털 음원 사용 방법]에 관한 주제군에서는 <유료로 다운로드 후 카세트로 제공>, <노트북, 스마트폰으로 직접 제공>으로 주제가 분류되어, 유아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음원 사용에 있어서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에게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유료로 다운로드 후 카세트로 제공

유아음악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은 같은 음원의 반복적인 사

용의 필요로 인하여 유료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비용이 소액일 뿐 아니라 결제 부분에서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기관에 비용을 청구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또한 다운로드 된 음원은 USB에 넣은 후 교실에 있는 카세트를 사용해서 유아들에게 들려주고 있었다.

어둠의 경로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유료로 다운로드 해서 사용해요. 그게 제일 편한 거 같아요. 솔직히 얼마 안하고. 그런 거 돈 안 내는 데 찾고 하는 것도 시간 걸리고. 저는 그냥 제가 돈 내고 사용해요. 얼마 전에 저작권 교육 이런 것도 받고 그래서 그냥 돈 주고 사용하는 게 맘도 편해요.(2017. 4. 3. 교사 F)

유료로 사용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불법 다운로드 찾아보기도 하고 공짜인데 있으면 그냥 썼어요. (웃음) 그런데 지적재산권(지식소유권), 저작권 법 등의 외부 교육을 받고나서는 공짜 음원 사용을 자제하고 있어요.(2017. 4. 7. 교사 C)

저희는 어린이집 비용으로 처리해서 유료로 구입했어요. 그런데 돈은 얼마 안 되긴 한데 얼마 안 되는 걸 결제해 달라고 하는 건 솔직히 좀 불편해요.(2017. 4. 7. 교사 E)

2) 노트북, 스마트폰으로 직접 제공

다운받지 않은 경우에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원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유튜브를 사용해서 음원 뿐 아니라 동영상도 유아와 함께 시청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 안 받고도 그냥도 듣기 가능하잖아요. 저는 다운 안 받고 그냥 들어줘요. 교실 컴퓨터에 인터넷도 잘 되고 하니깐 그냥 애들하고 같이 찾아서 들어줘요.(2017. 4. 7. 교사 E)

유튜브 이런 걸로 동영상으로도 가끔 보여주는데, 애들이 워낙 많이 보잖아요. 집에서 맨날 보고. 아이들이 혼자서도 스마트폰으로 그런 거 틀 수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게 오히려 더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2017. 4. 3. 교사 D)

3-3. 디지털 음원 사용의 이유와 장점

[디지털 음원 사용의 이유와 장점]에 관한 주제군에서 <사용이 편리함>, <연주하기 어려운 곡의 경우 요긴함>으로 주제가 분류되었다.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악기를 직접 연주하지 못하는 어려운 곡의 경우 디지털 음원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음악을 유아에게 제공하고 있었으며, 사용이 편리해 이미 많은 교사들이 디지털 음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사용이 편리함

유아음악교육 활동 중에는 연주가 번거로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여 교사들은 디지털 음원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디지털 음원 사용은 유아들의 상태를 살핌과 동시에 음악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사용의 편리함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의 안전을 위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아야 하는 유아의 특성과도 관련된 것으로 유아의 안전을 생각하는 교사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편하니까 많이 쓰게 되죠. 핸드폰도 되고, 교실에 컴퓨터나 노트북도 있으니까 쓰기가 쉽죠. (2017. 4. 7. 교사 G)

수업할 때 피아노 연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피아노가 뒤 돌아서 연주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산만해 지기도 쉽고. 아무래도 내가 뒤돌아 있으면 아이들은 제가 안 보는 줄 아니까 산만해져요. (2017. 4. 3. 교사 F)

피아노가 아니라 다른 악기여도 똑같아요. 악기 연주하면서 애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컴퓨터로 들려주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게 돼요. (2017. 4. 3. 교사 G)

2) 연주하기 어려운 곡일 경우 요긴함

교사들은 유아음악교육 활동으로 동요 반주 뿐 아니라 감상곡 등이 필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아에게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악기 연주와 디지털 음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악기 연주의 경우 악기 사용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유아와의 대집단 활동을 위해서는 악기 연주 연습을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악기 연주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디지털 음원의 사용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었다.

반주 해 주려면 곡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무슨 창작동요제 이런 곡들은 정말. 제가 잘 모르는 노래고 하니까 반주도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곡은 또 음원이 잘 나와있더라고요. (2017. 4. 3. 교사 C)

저는 몇 번 쳐보면, 연습을 좀 하면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안 날때가 많잖아요. 있다 보면 맨날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이런 것도 먼저 좀 쳐보고 할텐데. (중략) 이게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바쁠 때, 수업 준비할 시간 없을 때는. (2017. 4. 3. 교사 D)

3-4. 디지털 음원 사용의 단점

[음원 사용의 단점]에 관한 주제군에서 <다양하지 못함>, <사용방법이 불편할 때도 있음>으로 주제가 분류되었다. 디지털 음원 사용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사용 방법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유아음악교육에서 교사가 원하는 유아에게 적합한 곡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또한 교사의 사용방법의 미숙, 안정화되지 않은 음원의 공급으로 인하여 다소 디지털 음원의 사용이 불편할 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다양하지 못함

유아음악교육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특성으로 인하여 같은 곡이라 하더라도 교사는 속도나 표현 방법 등에서 유아에게 적합한 것을 찾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정 곡의 음원이 있더라도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아서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요즘은 없는 곡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문제는 아이들한테 적합한 것이 있는지에요. (2017. 4. 3. 교사 E)

아이들한테 맞는, 제가 찾는 그런 걸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2017. 4. 7. 교사 F)

너무 웅장하고 화려한 반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자극적이라 마음에 안 들어요. (2017. 4. 7. 교사 G)

새 노래 가르쳐줄 때는 정말 적당한 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반주만 있어야 하는데, 그 반주도 음이 명확하게 들려야 하는데 효과음이 너무 많아서 좀 그래요. (2017. 4. 7. 교사 C)

2) 사용방법이 불편할 때도 있음

검색을 통해서 적절한 음원을 찾은 후에도 교사들은 사용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유아음악교육 활동에서 같은 음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다운 받은 음원을 USB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저장 오류로 순서가 뒤섞여 있어서 당황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다운받지 않은 경우에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다 사용하기 보다는 일정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부분만을 재생하는데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컴퓨터에서 다운 받은 것을 USB에 순서대로 넣었는데, 교실에서 카세트에 꽂아서 틀면 순서가 뒤죽박죽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략) 아이들이랑 대집단 활동할 때 그러면 정말 대략난감이에요 (2017. 4. 35. 교사 G)

저두 그랬어요.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컴퓨터에서 보면 정말 제대로 순서대로거든요. (2016. 4. 7. 교사 D)

전날 다 해봐도 수업에서는 꼭 말썹일 때가 있어요. 동영상으로 볼 때도 원하는 그 부분은 몇 번씩 해도 안 나와서 그 사이에 아이들은 주의 산만해지고... (2017. 4. 7. 교사 B)

유투브나 동영상은 정말 이상한 광고 같은 것도 뜬금없이 나오기도 하고 민망한 게 나올 때도 있어서 정말 당황할 때가 생겨요.(2017. 4. 3. 교사 A)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음악교육에서의 음원 사용에 대한 경험을 현상학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96개의 의미있는 진술이 도출되었다. 유아음악교육에서 음원 사용에 대한 경험은 최종 4개의 주제군과 8개의 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원 사용 실태]에 관한 주제군은 <디지털 음원이 자주 사용됨>, <상황에 따라 직접 연주도 필요함>으로 주제가 분류되었다. 유아들과의 음악 활동 중에서 디지털 음원 사용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영유아보육프로그램과 누리과정을 연구한 김진실 외의 연구에서 새노래 부르거나 시 미디어 자료로서 음원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10]. 또한 디지털 음원의 사용빈도는 교사 본인의 악기 연주 실력과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1가지 이상의 악기에서 유아 음악교육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연주 실력을 갖춘 교사에게서도 디지털 음원의 사용이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디지털 음원 사용이 반드시 악기 연주가 불가능해서라고 판단할 수는 없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음원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직접 연주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 및 음률활동에서의 교수활동 자료를 살펴본 결과에서 따르면 음악 활동에서 음원·음악CD, 그림·사진자료, 악보, 동화 PPT, 이야기 나누기 자료 순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19]와, 초등학교 가창 지도 시 음악반주는 주로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함으로써 음원을 듣고 따라 부르기 방식으로 지도한다고 밝혔다는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18].

둘째, [사용방법]에 관한 주제군에서는 <유료로 다운로드 후 카세트로 제공>, <노트북, 스마트폰으로 제공>으로 주제가 분류되었다. 유아음악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은 같은 음원의 반복적인 사용의 필요로 인하여 유료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비용이 소액일 뿐 아니라 결제 부분에서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기관에 비용을 청구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또한 다운로드 된 음원은 USB에 넣은 후 교실에 있는 카세트를 사용해서 유아들에게 들려주고 있었다. 다운받지 않은 경우에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원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유투브를 사용해서 음원 뿐 아니라 동영상을 유아와 함께 시청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개인적으로 음원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이용행위가 발행할 때마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음악저작권의 전송권 또는 공연권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

하다.

셋째, [사용 장점 및 사용 이유]에 관한 주제군에서는 <사용하기 편리함>, <연주하기 어려운 곡의 경우 요긴함>으로 주제가 분류되었다. 유아음악교육 활동 중에는 연주가 번거로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여 교사들은 디지털 음원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디지털 음원 사용은 유아들의 상태를 살펴봐 동시에 음악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사용의 편리함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의 안전을 위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아야 하는 유아의 특성과도 관련된 것으로 유아의 안전을 생각하는 교사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유아음악교육 활동으로 동요만 주 뿐 아니라 감상곡 등이 필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아에게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악기 연주와 디지털 음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유아교사는 기본적으로 악기 연주를 할 줄 알아야 유아음악교육 지도를 잘 할 수 있다. 다만, 악기 연주의 경우 악기 사용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유아와의 대집단 활동을 위해서는 더 다양한 악기 연주 연습을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악기 연주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디지털 음원의 사용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넷째, [음원 사용 단점]에 관한 주제군에서는 <다양하지 못함>, <사용방법이 불편할 때도 있음>으로 주제가 분류되었다. 유아음악교육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특성으로 인하여 같은 곡이라 하더라도 교사는 속도나 표현 방법 등에서 유아에게 적합한 것을 찾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정 곡의 음원이 있더라도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아서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났다. 검색을 통해서 적절한 음원을 찾은 후에도 교사들은 사용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아음악교육 활동에서 같은 음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다운 받은 음원을 USB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저장 오류로 순서가 뒤섞여 있어서 당황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운받지 않은 경우에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다 사용하기 보다는 일정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부분만을 재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는 교수·학습방법에 있어서 교사의 목소리보다는 음원으로 들려주는 경우가 많고, 구체물 활동 자료 중 미디어 자료로는 음원이 가장 많았으나, 제시된 자료가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김진실 외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와도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10].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 교사 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게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에서 음원 사용이 교육매체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만큼 저작권에 대한 인식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영유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음원 사용을 포함한 저작물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및 연구 또한 심도있게 이루어

어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E. J. Jang, Development of the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program model for in-service teac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07.
- [2] E. S. Kim, Music and movement for infants, Paju : Yangseowon, 2010.
- [3] E. S. Oh and S. H. Lee, A Study on demands of education training about copyright for infant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17, No.5, pp. 349-357, 2016.
- [4] Gardner, H. Frames of mind: A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1983.
- [5] Gordon, E. E. A music learning theory for newborn and young children, Chicago, IL: GIA. 1990.
- [6] G. S. Lee, For music teacher, Seoul: Yesol, 2015.
- [7] Hoffer, C. R, Music teacher theory, Seoul: Univ. of Ewha Woman's Press, 2008.
- [8] H. S. Han. Music thought of Korea, Seoul: Minsokwon, 2000.
- [9] I. J. Hwang, (The) Effect of appropriate music experiences on music aptitude and attitude of two year-ol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08.
- [10] J. S. Kim and S. H. Kwon, An Analysis of New Song Activities in 'Infant Care Program' and 'Teachers' Guide Books for Nuri Curriculum,'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Vol.21, No.1, pp.34-46, 2017.
- [11] J. Y. Kim, J. A. Eom and S. Y. Lee, Music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Paju : Yangseowon, 2007.
- [12] K. C. Kim, K. J. Kim, E. H. Kim, J. A. Kim, H. Y. No, S. S. Moon, W. K. Son, J. H. Sin, L. H. Yoon, Y. A. Lee, K. O. Im, H. S. Im, J. O. Jung, J. H. Jo, S. J. Choi, H. J. Choi, and H. K. Han, General education for nursery school teachers, Paju : Yangseowon, 2016.
- [13] K. H. Min, K. H. Min, S. Y. Kim, Y. H. Kim, K. J. Bang, Y. H. Seung, S. M. Yang, Y. K. Lee, M. K. Im, K. B. Jang, S. E. Jo, D. C. Joo and K. S. Hyun, General principles of musical education, Seoul: Hakjisa, 2013.
- [14] K. M. Kang, K. M. Kang, H. K. Kang, Y. M. Kim, E. Y. Kim, I. K. Kim, J. A. Kim, S. H. No, M. H. Park, J. S. Byun., Y. S. Seo, H. Y. Song, S. Y. Lee, J. S. Lee, Y. H. Jung, S. U. Jung, K. S. Choi, K. H. Choi, M. H. Choi, S. J. Choi, J. H. Hyun and H. I. Hwang, Higher Education Teachers ' Training Level 1, Paju : Yangseowon, 2016.
- [15]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mmentary book of Nuri curriculum for ages 3 and 5,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 [16] M. J. Kim. A development and application effect of toddler's music program based on integrated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2011.
- [17] M. Y. Son, An analysis of the scope and sequence of contents for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in age-based Nuri Curriculum and teachers' guidebooks for 3, 4, 5 year-ol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17.
- [18] Suni Cho, A Study on Elementary Specialized Music Teacher's Perception about Teaching of Singing. Society for Pentecostal Studies in Korea, Vol.45, No.2, pp.251-274, 2016.
- [19] S. Y. Um., & Y. Y. Kim. An Analysis of musical and rhythmic activities in teacher's Manual of Nuri Curriculum,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pp527, 2015.
- [20]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
- [21] Y. S. Seo, "Audio Forensic Marking System for Copyright Protection of Streaming Music Service,"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15, No.3, 2014.



이소현(So-Hyun Lee)

1999년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문학사)
2014년 : 공주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육학석사)
2017년 :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육학박사)

2015년~현 재: 포스코(서울) 직장어린이집 원장
※ 관심분야 : 저작권 교육, 유아 놀이, 교사 교육 등



모아라(A-Ra Mo)

2006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문학석사)
2014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문학박사)
2009년~2015년: 서울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2016년~현 재: 연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관심분야 : 유아교육기관 중간관리자교육, 교사교육, 원장교육, 리더십교육, 에니어그램 교육 등